

漢 醫 學 의 理 論

대한 한의사협회 李 鍾 馨

〈目 次〉

- | | |
|------------|-------------|
| 1. 序 | 4. 漢醫學의 疾病觀 |
| 2. 漢醫學의 由來 | 5. 結 語 |
| 3. 漢醫學의 原理 | |

1. 序

人類創生以來 의학은 어느 시대에서나 늘 요긴한 民生問題로 대두되었을 것이다. 古代에서는 아마 哲學이나 政治學은 없었어도 어떤 형태로든 의학은 마련되어 있었을 것이며 痛苦나 死境을 경험하는 人間으로서의 權富貧賤을 막론하고 그 생명을 의학에 기대하였을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사실은 古代뿐 아니라 現代에도 또는 未來에서도 人類가 生存하는 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의학이 이처럼 人間생활과 밀접하게 直結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없이 의학이 人間の 生命을 보호하고 疾苦를 구제하는 직접 자기를 위해주는 학문인 때문이다.

따라서 의학의 本質은 그것이 어떤 觀念이나 美를 추구하는 感想의 학문이 아니라, 반드시 人命을 위하여 功效와 만족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 實利의 학문인데 있다.

때문에 의학은 人間이 요구하는 功效와 實利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 理論과 技術에 있어 최고도의 과학성을 추구한다. 특히 自然科學의 化學, 物理學, 工學, 電氣學등의 理論과 技術들은 의학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하여왔다.

그러나 의학이 이처럼 人類의 總智를 받아드려 과학의 最尖端을 驅使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또 그런 努力이 有世以來 수천년동안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人間에게는 아직도 많은 疾病과 虛弱者와 難治病이 남아있고 따라서 人間은 오늘의 의학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말로 지적해서 人間の 生命이라는 것이 그만큼 難解하며, 疾病 또한 그만큼 아직도 不退陣의 境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워 말하면 지금까지 人類가 發掘해놓은 과학과, 그리고 의학이라는 것이 아직도 人間の 生命보호나 疾病退治에 있어 결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어떤 과학자의 말과같이 지금 人類가 이룩해 놓은 과학은 이 自然界의 神秘함에 비하면 大洋속의 모래 한알 정도밖에 알아내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분명한것은 이 自然界에는 우리 人類가 아직 理解할 수 없는 사실들이 너무도 많고, 이 조그마한 人體속에도 도저히 한말로 표현할 수 없는 複雜함이 있으며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疾病 또한 결코 快刀亂麻식의 成果를 거둘수가 없다는 사실들이다.

自然과 人命의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그러면서도 人間이 요구하는 功效와 實利를 속 시원히 만족시켜 주어야 하는데에 의학자의 진정한 苦惱이 있다.

이 苦惱의 해결책은 오로지 지금까지 人類가

경험하여 얻은 모든 지식을 철저히 探究하며 自然과 人命의 眞理를 계속 추구해서 완전한 의학을 이룩할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의도에서 筆者는 東洋에서 傳來한 漢醫學을 연구하는 한 학도의 입장에서 이 의학의 由來와 理論과 그 가치성을 소개해보려는 것이다.

2. 漢醫學의 由來

漢醫學은 글자 그대로 中國 漢나라때 의학을 가르키는 말이지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또 韓國에서도 日本에서도 연구 발전되어온 의학이다. 다만 동양의 모든 文化가 그렇듯이, 中國의 漢字와 그 思潮를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漢醫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오고 있을 것이다.

漢醫學은 距今 2천년전 中國春秋時代에 著述되었다고 보아지는 「內經」에서부터 그 學問의 淵源이 시작된다. 黃帝라는 통치자와 岐伯이라는 天常사이 에 문답형식으로 저술된 內經의 理論들은 어떤 治療處方이나 藥物의 기제가 없이 순전히 理論만으로 人間의 生長老死로부터 人體內의 臟器, 組織, 生理關係, 그리고 疾病의 病理, 證候, 治法에 이르기까지 人間의 保健 全分野에 걸쳐서 저술되어 있다. 더욱 놀라운것은 「可解剖而視之」라는 文句가 있는 것으로 보아 人體를 해부해서까지 그 理論들을 뒷받침 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內經의 理論들은 그후 歷代의 어떤 醫學家도 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달리 주장한바가 없이 줄곧 漢醫學의 基本原理로서 준용되어 왔다.

이와같이 內經은 上古 春秋時代의 저술된 理論이면서도 2천년을 거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漢醫學의 基本原理가 되어 왔다는 사실은 물론 학문의 카리스마의 폐단때문이라고 할는지 모르나 의학은 實効와 實證이 있어야 存續된다는 점을 생각할때 틀림없이 어떤 科學的價値가 있음을 짐작할수 있는 것이다.

하영든 漢醫學은 距今 2천년전의 內經에서부터 그 理論的 根源이 시작되며 그후 지금까지 많은 의학자들이 이 內經理論을 기초로 하여 多角

도로 연구와 발명을 하여온 것이다.

이제 內經이후의 유명한 의학자와 그 업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中國 後漢시대에 張仲景(AD 142~220)이라는 의학자가 「傷寒論」과 「金匱要略」을 著述하였는데, 이 醫書에 비로소 實際醫療上의 治法과 處方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醫書는 역시 距今 1700년전의 著述이면서도 그 病症把握이나 處方構成, 그리고 効驗이 매우 정밀하고 우수한 때문으로 오늘날까지도 臨床醫書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리하여 漢醫學은 理論醫書인 內經과 治療醫書인 傷寒金匱書가 雙璧을 이루면서 그 基源이 확고해진 것이다.

張仲景과 같은 시대에 中國 山東地方에 華佗(AD 110~207)라는 名醫가 있었는데, 그는 外科醫術의 長技가 있었다고 한다. 史記에 의하면 그는 麻沸散이라는 마취약을 발명하여 外科手術을 하였는데 특히 關羽의 「刮骨療毒」術과 曹操의 「開頭洗腦」術등의 故事는 지금도 많은 화제를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의 秘法이 秘法이 에석하게도 曹操의 捕殺로 말미암아 後世에 傳치 못한다고 한다.

그後 診斷學의 鼻祖이며 「脉經」의 著者인 王叔和(AD 210~280), 鍼灸學術의 開發者이며 「鍼灸甲乙經」의 著者인 皇甫謐(AD 215~286) 藥物學의 研究家이며 「神農本草經」을 補註한 陶弘景(AD 452~536), 病理學의 開拓者이며 「諸病源候論」의 著者인 巢元方(AD 610), 製方家이며 「千金方」의 著者인 孫思邈(AD 590~682), 兒科醫學의 研究家이며 「小兒藥證直訣」의 著者인 錢乙(AD 1035~1117) 등 여러 特出한 醫學家들에 의하여 漢醫學은 各分科別로 까지 연구발전 되었다.

그後 13世紀頃 즉 中國金元時代에 이르러, 漢醫學은 그 理論과 治術이 더욱 多樣化되어 寒冷, 攻下, 補脾, 補腎등의 4大學派가 탄생 하였다.

劉完素(AD 1120~1200)는 모든 疾病은 熱을 隨伴한다 하여 주로 寒冷性藥劑를 즐겨 사용하였으므로 寒冷派가 되었고 張子和(AD 1156~1228)는 모든 疾病은 그 病毒을 排出시켜야 한

다고 주장하여, 주로 攻伐的인 汗下藥劑를 사용하였으므로 攻下派가 되었다. 이에 반하여 李東垣(AD 1180~1251)은 모든 疾病은 體力의 衰退로 招來되므로 특히 體力補充器官인 脾(消化系)를 補할것을 주장하여 補脾派가 되었고 朱丹溪(AD 1281~1358)는 先天元氣를 總轄하는 腎을 補할것을 주장하여 補腎派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4大學派의 주장은 각기 특징이 있는 것이지만 어떤 學說이 반드시 옳고 그르다는 偏見을 가질수없이 그 경우에 따라서 적용될수 있는 妥當性を 지니고 있다.

그 이후의 漢醫學은 이상의 4大學說의 출현으로 더욱더 다채로워졌는데, 이를 轉機로하여 중전에 張仲景의 傷寒金匱論醫學을 「古方派」라 부르고, 4大學派醫學을 「後世派」라고 부르게 되었다.

李梴(AD1575)의 「醫學入門」, 李時珍(AD1596)의 「本草綱目」, 王肯堂(AD 1605)의 「證治準繩」, 張景岳(AD 1640)의 「景岳全書」, 喻昌(AD1658)의 「醫門法律」등은 모두 後世派醫學의 大家들이며 그의 著名한 醫書들이다.

한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미 高句麗, 百濟, 新羅時代에 醫學이 크게 발전하여 日本에까지 傳播되었고, 「百濟新集方」, 「新羅法師方」, 「濟衆立効方」등 훌륭한 醫藥書들이 刊行되었다.

李朝時代에 와서는 世宗朝에 편찬된 「御藥集成方」(AD 1433), 世祖朝에 편찬된 「醫方類聚」(AD 1477), 宣祖朝에 許浚(AD 1600)이 著述한 「東醫寶鑑」, 景宗朝에 周命新(AD 1724)이 著述한 「醫門寶鑑」, 그리고 高宗朝에 李濟馬(AD 1894)가 著述한 「東醫壽世保元」등 방대하고 훌륭한 醫書들이 많이 나왔다. 특히 東醫寶鑑은 東洋에서는 물론 世界的으로 널리 알려진 醫書로서 우리 韓國醫學의 큰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은 오늘날 四象醫學이라고 불리우는 獨特한 醫學說인데 이런 훌륭한 의학이 우리나라 醫學者에 의하여 천명되었다는 것이 또한 크게 자랑할만한 일이다.

또한 日本에 있어서는 平安朝에 丹波康賴(AD 984)가 著한 「醫心方」, 江戶朝에 曲直瀬道三(AD 1574)이 著한 「啓迪集」, 그리고 大知本草(AD

1709) 一本堂藥選(AD 1729)등의 醫藥書가 著述되었으며 近世에서는 湯本求真(AD 1925)이 著述한 「皇漢醫學」이 有名하다.

3. 漢醫學의 原理

約 2000年前부터 지금까지 한 體系를 一絲不亂하게 堅持하면서 傳承되어온 漢醫學은 물론 그 學問의 背景을 이룬바 東洋의 自然觀이며 思想觀인 「東洋哲學」에 두고 있다. 따라서 漢醫學을 構成하는 學術的 原理는 바로 東洋哲學의 原理와 相通하는 것이다.

東洋哲學의 根本原理는 太極, 陰陽, 五行說로 要約되고, 그것은 또한 「圓의 原理」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漢醫學 역시 太極, 陰陽, 五行說을 바탕으로 하는 圓의 原理로서 說明될수 있는 것이다.

圓의 原理란 즉 循環論이며 動的變化論을 가리키는 말이다. 모든 事物은 늘 動的으로 變化하고 있고 그 變化는 또한 循環的이라고 한다. 宇宙도, 地球도, 사람도, 草木도, 原子도, 각기 時間的인 遲速은 있으나 그들대로 變化가 있고, 始終과 生滅이 連續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漢醫學에서는 「太極論」으로 說明하고 있다. 즉 모든 事物은 太極이라는 統一世界에서 陰陽의 相對性向이 內包되고 이 相對性向은 矛盾對立, 相補, 連接過程을 거쳐서 다시 調和된 統一世界 즉 太極으로 歸一한다고 한다. 이런 循環變化가 連續되기 때문에 모든 事物은 언제나 動的現象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 動的現象을 파악할수 있어야만 事物의 眞性を 알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漢醫學의 自然觀 乃至 事理觀은 事物의 靜在性인보다 動的과 現象 즉 變化現象을 파악하는 것을 根本理念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方法으로 事物의 動的現象을 파악할 수 있는가. 여기에 漢醫學은 그 方法으로서 「陰陽論」을 適用한다. 가령 寒과 熱, 降과, 升散과 收, 進과 退, 虛와 實등등 그 事物의 現象的 趨向이 어떤 狀態에 있느냐는 것을 陰陽의 觀察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陰陽이란 말은, 늘 相對性을 內包하고 있는 말이다. 가령 陰的이라고 할때 그 意味는 陽보다 陰이 優勢하다는 뜻

이지 陰만 있고 陽은 全無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언제나 陰과 陽은 全體속에 同存하며 다만 그 優劣이 항상 流動의 일 뿐이다. 이러한 二元性觀察法은 그 事物의 動的觀象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며 방법이지 目的은 아닌 것이다. 目的은 어디까지나 그 事物의 全體 즉 統一의인 太極을 아는데 있다.

漢醫學은 人體를 하나의 太極으로 보고 그 太極이 發現하는 生動的 趨向이 어떤 狀態에 있는가를 陰陽의 二元性觀察法으로 파악하고, 이를 調和統一된 至善의 太極이란 그 事物이 타고난 天然의 宿命 즉 本性을 가르키는 말이다.

그러면 모든 事物은 어찌서 連續的인 變化運動을 이르기면서 자기의 運命軌道를 循環하게 되는가, 이것을 解明하는 理論이 즉 「五行의 相生相剋說」이다.

하나의 統一世界인 어떤 事物속에는, 하나의 宇宙가 森羅萬象의 質量을 包容하고 있듯, 또는 하나의 原子가 많은 素粒子를 包容하고 있듯이 수많은 質量이 包容되어 있다. 그리고 이 質量들은 統一世界속의 一部分으로써 역시 그대로의 變化運動을 한다.

五行說은 이 質量들을 그 性質에 따라 金, 木, 水, 火, 土의 五구름으로 分類하고 各구름間의 相關關係를 說明한 것이다. 어찌서 5개 구름이 나는데 대해서는 그 설명이 장황하므로 생략하고 다만 이러한 分類는 固定된 分類가 아니라 크게는 陰陽의 둘로 分類해볼수도 있고, 細分하면 15, 45, 135 등으로 分類해볼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分類한 種別自體가 아니라 이 種別들이 連關하여 生動하게 되는 相互關係인 것이다. 가령 a類와 b類와는 相互關係 b類와 c類와는 相克關係, 또는 d類는 c類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고 E類는 a類를 도와주어야 하는 등의 서로 連關的인 關係下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즉 漢醫學에서 말하는 「相生相克法則」이다. 이리하여 수많은 質量들은 全體라는 데두리 안에서 統一性을 형성하며, 주어진 本性의 軌道를 밟아간다는 것이다. 마치 그 關係는 생쥐와, 고양이와, 개와, 호랑이와, 코끼리

가 한 우리속에서 한 세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다.

漢醫學은 이러한 相生相克法則을 人體內部에 適用하여 各臟器의 關係와 그 生理 및 病理現象을 說明하고 또 治法에도 應用하고 있는 것이다.

4. 漢醫學의 疾病觀

上述한 바와 같이 人體를 하나의 宇宙, 또는 統一世界로보는 漢醫學은 宇宙自然속에서 버려지는 여러가지 狀況, 事實, 理致등을 人體內에도 똑같이 適用시켜서 생각한다. 즉 宇宙大自然의 原理인 太極, 陰陽, 五行說을 人體에도 똑같이 適用시키는 것이다. 이 哲學的原理를 人體에 適用시켜 考察하는 要領과 方法을 說明해 놓은 것이 바로 2000年前의 著述인 「內經」이다.

그러므로 漢醫學에서 보는 人體는 언제나 「至善의 太極」일 것을 理想으로 한다. 至善의 太極이란, 모든 狀況이 自然의 調和狀態처럼 統一되고, 平隱하고, 그러던서 本然의 生動을 계속하는 그런 人體를 말하는 것이다. 漢醫學은 이것을 理想的인 健康體라고 한다.

그러나 단일 그 調和狀態가 허무러져서 秩序가 破壞되고 內部分亂이 일어나 本來의 生動을 能率의으로 하지 못할 때 이것을 疾病體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至善의 太極狀態를 파괴시켜 分亂을 이르게 한 要素가 즉 疾病의 原因이고, 그런 紛亂을 顯出하는 現象이 즉 疾候이고, 그 症狀들을 살펴서 六何의 所以然을 알아내는 것이 診斷이고, 이리하여 紛亂의 理由와 原因과 正邪를 가려서 이를 除去하며 至善의 太極 즉 理想的인 健康體로 是正해주는 것이 治法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概念들은 물론 東西醫學이 같다고 보겠으나, 그 內容에 있어서 疾病의 原因이나 症狀把握이나, 治法의 構想같은 것은 西洋醫學과 根本的으로 다르게 되어 있다. 그것은 前述한바와 같이 漢醫學에서는 人體를 언제나 全體의 統一體로 생각하며 또한 機能的이고 生動的이라고 보는 때문이다.

그러던 이제 漢醫學에서 보는 疾病의 原因, 病理, 診斷, 治法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原因=漢醫學에서는 疾病의 原因을 대체로 外因, 內因, 不內外因의 3 종류로 分類한다. 이것은 막연한 分類가 아니라, 이러한 分類에 의하여 病理, 症狀, 治法등이 전연 달라지는 때문에 이렇게 分類를 하는 것이다. 外因은 글자 그대로 밖으로부터 侵入하여 內部로 들어오는 疾病을 말한다. 즉 氣候變化로 생긴 毒素 또는 病菌 등의 侵入은 能히 生體의 調和狀態를 破壞시킬 수 있는 것이다.

內因은 外來的인 病因이 없이 體內에서 內發的으로 이어나는 疾病이다. 즉 精神的, 肉體的 過勞나 虛衰등은 역시 人體의 調和狀態를 해칠 수 있다. 특히 感情의 緊張같은 것은 疾病의 중요한 內因으로 취급 된다. 不內外因은 上記 外因 內因을 除外한 其他의 原因들 즉 外傷 事故 등의 원인들을 말한다.

病理=漢醫學에서 말하는 病理는 대체로 病因의 發病機轉과 傳變過程등을 說明하는 理論들이다. 外國은 우선 表(皮膚)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로 半表半裏(肌肉), 裏(內臟)로 侵入하는데 그 經過上의 症候나 治法은 물론 그 位置와 情勢에 따라 각기 다르다. 또 外國은 裏(內臟)에서 發生하여 점차로 外表(즉 全身으로)로 擴散되는데 역시 그 經過上의 症候나 治法이 각기 다르다.

診斷=漢醫學은 어떤 臟器 또는 局所의 病巢나 病原體를 診斷하는 것이 아니라 綜合的인 症候群을 診斷하는 것이 特徵이다. 더구나 生體上에 發現하는 全體的인 機能現象을 診斷하는 것이기 때문에 漢醫學에서는 診斷學이 가장 詳細하며 細密하다. 사실 漢醫學의 骨子는 診斷과 治法이 그 全部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러한 症狀을 把握하고 그 症狀의 情勢, 趨向, 副症 그리고 全身의 影響까지도 細密히 糾明하여야 한다. 여기에 陰陽論과 五行論의 原理가 適用됨은 물론이다. 이리하여 어떤 治法을 써야 할 것인지를 診斷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漢醫學에서는 病名을 찾기 위한 診斷이 아니라 診斷을 하는데는 節次와 方法이 있는데 이것이 즉 望(視)診, 問診切(觸)診의 4 診法인 것이다. 이 4 診法은 醫者의 能熟度에 따라 그 節次가 생략되기도 하나 診法을 모두 驅使하여야 正確한 診斷이 될 것은

물론이다.

治法=診斷이 자세하고 細密한 것과 마찬가지로 治法 또한 자세하고 細密하다. 알면 알수록 理致가 通達되고 理解가 容易하여 要領把握이 잘 되는 것이다. 古代에서는 治法이 汗, 吐, 下, 解의 4 法이 있으나 後世에 와서 補法이 더 追加되었다. 病이 表(外表)에 있으면 汗法을 쓰고, 半表半裏(中間位)에 있으면 解法을 쓰고, 裏(內裏)에 있으면 下法을 쓰고 虛한 者에게는 우선 補法을 쓰는 것이 原則이다. 그러나 이 역시 各症候에 따라 또는 體質에 따라 千差萬別일 수 있다. 漢醫學은 그만큼 어떤 狀況이든 治法을 自由自在로 驅使할 수 있는데에 妙味가 있는 것이다.

治法이 이와같으므로 藥品이나 處方 또한 症候에 따라 自由自在로 作成하고 選擇할 수 있다. 물론 名醫들이 使用해서 効驗을 본 既成處方을 選擇할 수도 있지만, 藥性和 處方構成法에 따라 症候에 알맞게 適財適所로 處方을 創作해서 使用할 수도 있다. 處方構成은 君臣佐使法(配合法)에 의하여 새로 構成할 수도 있다. 또 藥品은 이를 本草라고 하여 生藥 그대로를 쓰는 것인데, 本草마다 漢醫學的으로 그 性味가 判明되어 있어서 必要에 따라 適財適所로 選擇하여 使用할 수 있는 것이다.

5. 結 語

人類은 예로부터 모든 自然現象을 觀察하고, 經驗하고, 推理하고, 記錄하여 왔다. 이것을 통해서 自然의 由來와, 構造와, 理致와, 그리고 未來까지도 窺할 수 있는 知識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 知識은 오늘에 와서 보니 東洋과 西洋의 것이 判異하게 달랐다. 認識이나 思惟부터가 달랐고, 觀察하는 方法이나 判斷하는 基準까지도 다르게 되어 있었다. 우선 자연을 보는 觀點부터가 東洋에서는 動象을 보고 있었고, 西洋에서는 靜態를 보고 있었으며, 東洋에서는 事物을 哲學的으로 把握하려는데 비해 西洋에서는 科學的으로 認知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오늘과 같은 東西洋의 判異한 文化가 形成되었고, 따라서 이를 背景으로 하여 成長된 醫學도, 判異하

계 두개의 醫學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각기 完全한 것이 아니라 아직 不完全한 狀態로 開發途上에 있는 醫學이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西洋醫學의 科學的인 進歩는 高度로 外科手術을 發達시켰고, 무서운 傳染病들을 退治시켰으며, 應急疾患의 迅速한 處置術등으로 많은 人命을 救濟했다. 그러나 그 裏面에는 人命을 機械視하는 폐단과, 局所的이며 近視眼的인 沒頭와 慢性病에 對한 無策등의 短點이 있는 것이다.

또한 東洋醫學은 全體를 認識하는 直觀과 透徹力으로 優秀한 內科醫學을 發展시켰으며, 生命力的 保護와 培養에 能率的이고 또한 自然的(草木金石등)의 本然的 利用法을 發明하여 藥의 無限在함을 誇示했다. 그러나 역시 너무도 全體的인 最高의 理想만을 꿈 꾼 나머지 局所的인 分折과 機械的인 創造를 等閑히 하여, 外科的인 手術이나 細菌性傳染病 또는 應急處置術등에 下足한 點이 있다.

이제 世界는 하나의 塊이 되고 東西의 文化는 한자리에 얹게 되었다. 각기 다르게 成長해온 두 醫學은 이제 하나의 世界醫學으로 結合되어야 될

때가 온 것이다. 더구나 彼此가 가진 長短點은 서로가 取長補短을 要하는 事項들이다.

東醫學과 西醫學의 結合은 하나의 時代的인 趨勢이며 또한 社會的인 要請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마치 至善의 太極을 이루듯 하나의 世界醫學을 創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拚他的인 癡合이나 勢力的인 併合이어서는 不될 것이다. 두 醫學의 根本이 다르고, 觀點이 다르고 特徵이 다른 이상, 어떤쪽이 主가 되고 어떤쪽이 從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서로가 取長補短을 하므로써 만이, 마침내는 스스로 하나의 醫學이 形成될 것이라고 본다.

마치, 장님의 다리와 앓은뱅이의 두 눈을 結合한다면 우리 人類保健의 앞길은 그리 더듬지 않아도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內 經 原 典	
宇宙變化의 原理	(韓) 韓 東 錫 著
自然科學 概論	(韓) 朴 同 玄 著
中國 醫學史	(中) 陳 存 仁 著
韓國文化史大系 (韓國醫學史編)	(韓) 高 大 民 文 研 刊 (盧 正 祐 著)
漢方大醫典	(日) 大 堤 敬 節

